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아동부터 청년까지 복지 지원체계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전북 청년미래센터 방문 26일 시행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운영 현황 점검 중앙-지방 협력 방안 논의... 안정적인 운영 공조

전북특별자치도도가 16일 전북 청년미래센터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련사건 2면>

이번 방문은 전북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위기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만큼,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8월 출범한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785명에게 약 13억4,300만원 규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IBK행복나눔재단·웰트리온 등과의 민간 협업을 통해 약 2억3,0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114명을 별도 지원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학업·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돌봄비(연 최대 200만원)를 지급하고, 교육·금융·주거·법률·일자리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아픈 가족에 대해서는 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부담을 함께 줄여나가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초기 상담부터 일상회복, 사회관계 형성, 간단한 일 경험에 이르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토래와의 공동생활 프로그램과 가족 심리상담·갈등 조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청년 당사자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센터 시설을 둘러보며 종사

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족돌봄 청년·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상담·사례관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가 점검됐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특히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이후 제도가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전북의 추진 경험이 전국 정책 확산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법 시행에 맞춰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청년미래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아동부터 청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전북에서 드림스타트 전담팀 96명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준 3,078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교육·문화·복지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별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연계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계별 관리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맞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전북의 추진 경험은 전국적인 정책 확산 과정에서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아카데미 2관왕' 케데헌 오스카 수상 기념



메기 강(왼쪽부터) 감독, 크리스 아벨한스 공동 연출자 L.M.원 프로듀서가 1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후 프레스룸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케데헌은 주제가삼까지 포함해 아카데미 2관왕을 달성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서남권 해상풍력 1GW 규모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기후에너지부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거쳐 확정 전북 포함 집적화단지 지정 해역 전체 국방부 협의 완료 '조건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확산단지2) 사업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추가 지정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 이번 지정으로, 시범단지 단체인 1GW가 집적화단지로 편입됐다. 이로써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전체 물량인 2.4GW가 집적화단지 체계 안에 포함됐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전북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원을 투자해 2.4GW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원전 약 2.4기에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원공 시 수십만 가구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의 해상

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증단지(60MW) 조성을 시작으로 시범·확산 단계를 거쳐 꾸준히 추진돼 왔으며, 이번 집적화단지 완성으로 사업 전반기가 더욱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 올라서게 됐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자체 추가 가중치 REC 0.1 확보, 2.4GW 규모의 전력계통 선투자 혜택이 주어지고, 공모를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 권한도 부여된다. 이번 지정은 도가 그간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안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해상풍력 단지를 중심으로 부품·설치·유지보수 등 관련 산업이 집적되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 산업 벨트 구축에 본격 나서는 한편, 2030년 산업 운영을 목표로 각 단계별 절차 이행에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지정은 조건부다. 전북을 포함한 집적화단지 지정 해역 전체가 국방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정부·국방부·예하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기자

행안부장관 지휘 감독 중수청법 처리 '속도' 오늘 소위 심사 마무리

민주, 19일 공소청법과 함께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

'사이버범죄 등에 문제 제기' 혁신당과의 조율 여부에 "주요 쟁점... 조율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해 상임위 소위 심사를 오는 17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6일 법안심사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10시에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으로 처리해 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중수청법은 공소청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일환이다. 오는 10일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 조직과 소속 수사관, 수사법위 등을 다룬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난달 말 정부 수정안이 나왔다.

중수청 수사법위 선거법외 제외,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장·직원 지휘·감독 등이 쟁점이다.

윤 의원은 "여야 간 조금이라도 합의가 안 됐거나 의견이 안 모인 것은 쟁점을 남겨 다시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의견을 모은 것 아닌가"라며 "개인적으로는 속성할 만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중수청 수사법위 중 사이버범죄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국혁신당과의 조율 여부를 묻는 말에는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열심히 치열하게 논쟁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본회의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그러나 소위 이후 구체적인 전체회의·본회의 상정 시기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상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국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

완주군의의회